



기다린다

코끼리가 남긴 커다란 발자국에 작은 생명들이 태어난대요.
알에서 올챙이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작은 생명들이 자라날 때까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나는 기다려요

엄마 개구리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기다리고 있나요? 생일? 여행? 친구 만나기?

내가 제일 기다리는 것을 적어 보고,
기다리는 동안의 모습과 기분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너는 뭘 기다리고 있어?



정글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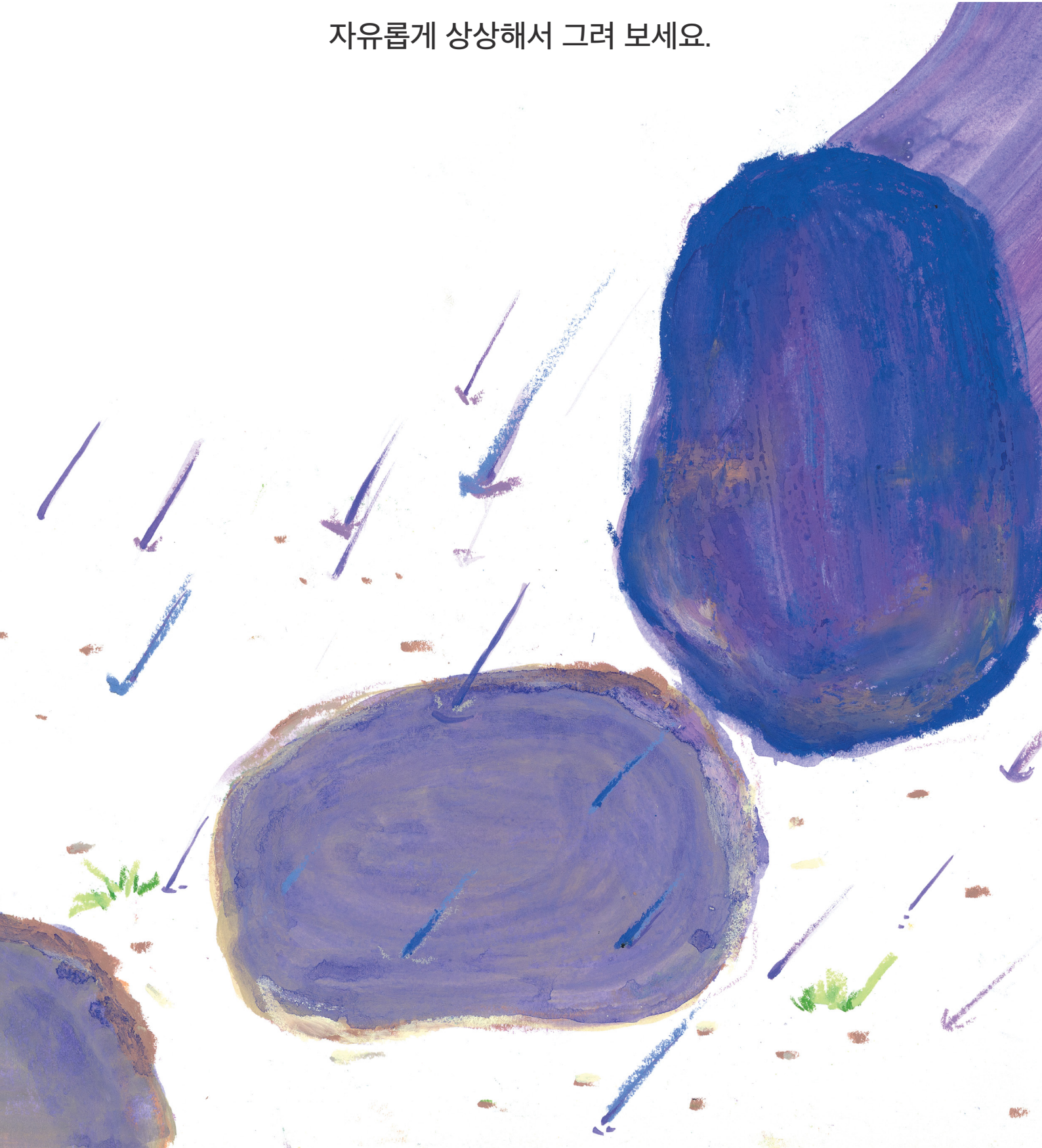
정글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 동물과 식물을 그려 멋진 정글을 만들어 보세요!



쿵!

코끼리가 또 다른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나의 성장 네 컷

사진을 붙여 나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세요.

